

“만수무강하세요”...자식같은 효행 ‘몽클’

‘어버이날’ 칠석동 경로위안 잔치 청년회·부녀회 자발적 행사 개최 푸짐한 음식·농악놀이 등 다채 “고마워~” 어르신들 함박웃음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전 남구 대촌동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 잔치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제51회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전 남구 대촌동 고싸움테마파크.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년 만에 칠석동 청년회와 부녀회에서 주최했다.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기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서로를 부둥켜안고 안부를 물었다. 식탁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수육과 김치, 막걸리 등 맛있는 음식이 준비돼 있었다. 어르신들은 친구들과 농악놀이와 사물놀이 공연 등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청년회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마을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자식들도 휴일도 없이 바쁜데 어버이날이라고 고향에 온다는 게 부담이라 생각한다”며 “어버이날 자식들은 못 보지만 친구들이라도 볼 수 있게 잔치를 열어준 청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촌동 경로위안 한마당 잔치가 어버이날에 큰 행사로 열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다른 동네보다 훨씬 높은 탓이다. 칠석동 등 15개의 동이 합쳐진 남구 대촌동은 남구 지역 면적의 약 58%를 차지하면서, 농경지는 70%에 달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다른 마을보다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 예로부터 효가 중요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마음 한켠에는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칠석동 주민 김 모씨(81)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도 아닌데, 어버이날까지 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칠석동 부녀회와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큰 절을 올렸다. 주민 박 모씨는 “마을 사람들끼리는 서로 속 사정을 거의 알고 있다 보니 청년들이 자식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동네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마을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고맙다면서, 칠석동 효행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길 소망하기도 했다. 이춘길(79) 칠석동 노인회장은 “칠석동은 예로부터 효심이 가득해 평소에도 말 한마디가 따뜻한 동네이다”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로 변했지만, 기본적인 도리인 부위자강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술취한 경찰관 추돌사고 자택 불 지른 70대 숨져 어린이날 연휴 사건사고

어린이날 연휴기간 광주·전남에서 음주 교통사고와 방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공직자간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 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들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승용차를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출발지 근처인 광주 광산구 한 도로 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쳤다. 경찰이 검거 후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광산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B 순경을 입건했다. B 순경은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고, B 순경은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음주 측정 결과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순경이 새벽 출동을 위해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같은 날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C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고흥에서는 7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9시 58분께 고흥군 금산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여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70대 남성 D씨가 숨지고 부인인 60대 여성 E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D씨는 병원에 다녀오자 E씨의 말에 화를 내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E씨는 집에 불이 붙자 황급히 몸을 피지만 D씨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준 기자

‘오월의 노래’ 공연

5월 한 달간 5·18민주광장

광주의 5월을 기억하고 추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상설음악회인 ‘오월의 노래’ 공연이 올해도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오월의 노래는 5·18민주항쟁 4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음악인들과 함께 5월 한 달 동안 광주를 오월 노래로 채우는 행사다. 1980년 이후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의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 온 ‘거리 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것으로, 엄혹했던 시절 경찰이 제지할 수 없었던 종교기관인 광주 가톨릭센터(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로비 앞에서 진행된 게 시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매일 저녁 6시, 휴일은 4시부터 진행된다. 45개 팀·4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함께 한다. 공연장은 5·18민주광장 상설무대다. 포크·록·국악·연극·재즈·뮤지컬·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가 ‘오월의 노래’를 풍성하게 채우게 된다. /민찬기 기자



지난 6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오월의 노래’ 공연에서 허영정트리오가 조각배 등을 열창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방수성, 내마모성, 내염성,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열성, 내동결성, 내습기성, 내오염성, 내곰팡이성, 내곰팡이균, 내곰팡이균, 내곰팡이균, 내곰팡이균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생산 품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실,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셸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유시점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